
전쟁 관련 기록물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A Study on Designing of metadata elements for war-related records

소정의 (So, Jeongeui) | 전북신용보증재단 기록연구소 | so94815@gmail.com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사례조사
 4.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5. 결론
-

초 록

전쟁이 끝난 후 나라에서는 관련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아카이빙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쟁 관련 기록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포괄하여 우리나라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들의 기록들을 통합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메타데이터의 구조와 요소를 설계하였다. 전쟁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전쟁 기념관과 영국 제국전쟁박물관, 캐나다 전쟁박물관에 관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고, 기관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참고하였다.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선정하고 비교하여 전쟁 관련 기관에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 중 가장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뽑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상위요소에는 '필수요소'가 11개, '해당시 필수요소'가 2개 '선택요소'가 10개로 메타데이터 세부요소들을 선정하였다.

* 키워드 : 전쟁기록,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사례조사

ABSTRACT

After the war, the country is obligated to collect and archive related records. Therefore, this thesis designed the structure and elements of metadata that can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not only for Korean wars but also for wa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including all data on war-related records.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War Memorial of Korea, the Imperial War Museum of England, and the War Museum of Canada, which ar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for collecting war-related records, and the metadata elements used by the institutions were referenced. Metadata standards that can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war-related records were selected and compared, and the one that could bes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s using metadata in war-related organizations was selected. Metadata details were selected as 11 'required elements' and 10 'optional elements' as 'required elements' and two 'essential elements' in this study.

* Keywords : War Records, Metadata, Technical Elements, Case Studies

• 논문접수일 : 2020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 2020년 9월 1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0월 2일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쟁은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백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은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발생시킨다. 전쟁의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하나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의 나라 전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전쟁 발발 국가는 큰 의미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상관없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전쟁을 치른 국가와 국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자메이카의 레게가수 밥 말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과거를 모르고는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를 기록한 기록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막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 관련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전쟁이 발생하였다면 서로 적으로서 싸우는 나라들과 그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도 모두 기록물 생산기관이기 때문에 한 전쟁에 관하여 기록물들이 분산되어 저장된 것보다는 같이 관리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 관련 기록물을 같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전쟁 관련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같은 메타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라에서는 관련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아카이빙할 의무가 있다. 전쟁기념관은 6.25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으로 유물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기념관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데이터를 기본적인 요소들만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쟁기념관은 교육에 대한 자료나 견학 실습은 제공하고 있지만 전쟁관련 기록물을 이용한 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교육용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메타데이터를 설계 하려고자 한다. 전쟁기념관의 주 이용자는 가족단위이며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오기도 한다. 이유는 거의 아이들의 역사교육이나 전쟁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전쟁 관련 기록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포괄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들의 기록들을 모두 본 연구의 결과인 메타데이터 요소를 붙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전쟁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사용하여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성격상 하나의 전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전쟁에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관련 기록물 또한 같은 전쟁이라도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서 수집되고 관리되

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나라에서 한 전쟁 관련 기록물을 모두 관리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많은 나라에서 기록들이 분산되어서 저장되지만, 모든 나라가 같은 메타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해서 기록들을 이용하기 편리해 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방법

전쟁 관련 기록물들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과 특성을 포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전쟁 관련 기록물을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범위를 제안하고자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쟁기념관과 영국 제국전쟁박물관, 캐나다 전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현황조사를 통해 유형분석을 한다. 그 후 전쟁기념관과 영국 제국전쟁박물관, 캐나다 전쟁박물관에서 사용한 특수한 메타데이터들을 알아본다. 메타데이터 표준 중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이 들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설계하기 위하여 더블린코어와 예술용 메타데이터 표준인 CDWA와 한국유물분류표준을 비교한 후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에 맞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한다. 최종적으로 전쟁 관련 기록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한 후 사례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전쟁 관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를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쟁 관련 기록물을 포함하는 역사기록물 연구이다. 문정화(2014)의 연구는 관련 기록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하여 관련 기록물의 수집현황을 파악하고 기록물에 따른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수집을 통하여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에 대한 컬렉션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정화의 연구를 통해 전쟁 관련 기록물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고하였지만, 기록물의 범위를 수집을 위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쟁 관련 기록물의 범위를 넓게 보았다. 다음으로 장윤이(2014)의 연구는 역사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디지털아카이브를 제안하였다. 장윤이의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에 염두에 두고 기록물의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였고, 자료를 저장할 매체의 선택, 자료 형식의 선택, 메타데이터의 데이터 요소 설정 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마정춘(2009)의 연구에서는 6·25전쟁 당시의 미 육군 역사기록물을 수집하는 국내기관의 수집현황을 분석하여 중복수집의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이다.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관련 역사기록물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를 위하여 서연수 외(2016)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대표 기관들 중 몇 곳을 선정하여, 소장된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기록물에 대한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전쟁 관련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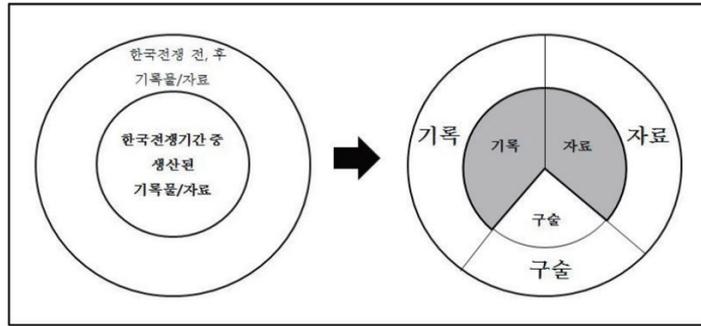
2.1.1 개념

전쟁 관련 기록물이란 광역의 개념으로 역사기록물의 안에 있고, 군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역사 기록물은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로 나누어진다.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는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일정 기간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었고, 이후의 어떤 활용목적 위해서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그 중 매뉴스크립트란 개인이나 가문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각종 조직체에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특정목적이나 주제연구를 위해 수집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매뉴스크립트는 수집, 관리하는 기관을 매뉴스크립트 관리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수집되는 기록물은 개인, 가문기록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체의 기록물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생산한 기록물도 매뉴스크립트가 될 수 있다(유영산 2004). 이를 보면 역사기록물은 매뉴스크립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쟁 관련 기록물은 아카이브즈적인 성격을 가진 기록물과 매뉴스크립트적인 성격을 가진 기록물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관련 기록물은 전쟁에서 사용된 장비와 도구, 전쟁에 참여한 국가나 국민에 의해서 생산된 문서나 사진, 영상 등, 전쟁이 발발하기 전 전쟁에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들, 전쟁 후전쟁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기록과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 기록등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다. 전쟁 관련 기록물들을 정의하기 위해 범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쟁 관련 기록물을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여 보았다.

2.1.2 범위

다음의 < 그림 1 >은 문경화의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에 관한 연구에서 작성한 그림이다. 왼쪽 그림은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을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광의의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이란 전쟁의 발발하기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록물, 기록자료, 박물관 및 연구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문경화의 연구에서는 < 그림 1 >의 오른쪽에 색칠한 한국전쟁기간



<그림 1> 한국 전쟁 관련 기록물 범위

중 생산된 기록물과 자료를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정의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경화의 연구와는 달리 전쟁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관련 기록물의 범위를 1차적 범위와 2차적 범위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표 1> 전쟁 관련 기록물의 범위

범위	내용
1차적 범위	전쟁 중 생산된 기록물만을 전쟁 관련 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그 때 생산된 문서, 사진, 박물관 등을 포함한다.
2차적 범위	전쟁 전, 후로 생산된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고,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전시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포함한다.

1차적 범위의 기록물은 전쟁 중 생산된 기록물만을 전쟁 관련 기록물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문서, 류나 장비, 사진 등의 유형들이 많다. 전쟁의 생생한 풍경과 활동들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차적 범위의 기록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피해자의 증언 기록이나 전쟁 후 수습에 관한 기록들,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과 같은 기록물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차적 범위와 2차적 범위의 기록물들까지 포함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고자 한다.

3. 사례조사

3.1 국내 -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에 대한 군사 장비나 군대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으

로 주로 6.25전쟁에 사용했던 장비들을 전시하고 있다. 1994년 6월에 개관하여 연간 약 100~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역사가 깊은 박물관이다. 전쟁기념관을 선정한 이유는 전쟁 관련 기록들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서 수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중 전쟁기념관은 주제를 전쟁으로 정하고 기록들을 수집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이런 산재되어있는 기록물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전쟁기념관에서 현재 소장중인 유물은 총 34,176점으로 세부리스트는 공개가 되어있지 않다. 현재 전쟁기념관에서는 소장 자료에 대한 관리 시스템(체계)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째, 소장품관리시스템으로 전쟁기념관이 유물로 수집하여 보존, 관리, 연구, 전시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전쟁기념관의 유물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 및 재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체계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과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메타데이터 및 세부코드 정보가 표준유물관리시스템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전쟁기념관 디지털아카이브관리시스템이다. 디지털아카이브관리시스템은 전쟁기념관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수집, 연구, 조사, 전시, 교육, 추모행사, 학술활동 등)에 대한 생산 자료를 수집, 관리,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내부직원에게 한해 있고, 대국민 오픈아카이브는 향후 개발 예정이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소장품관리시스템은 유물에 대한 이력인 수집경로, 위치, 보존 처리 이력 등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운용되는 시스템이며, 디지털아카이브관리시스템은 유물에 대한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기증서, 서비스용 사진, 기증자 인터뷰 영상 등을 비롯하여 전시, 교육, 각종 행사 정보와 관련된 사진, 영상, 그래픽, 문서류등의 다양한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쟁기념관 디지털아카이브관리시스템은 고도화 사업 중에 있으며, 아카이브 DB는 현재 보유 자료를 디지털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다.

전쟁기념관의 자세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웹사이트 내에 소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쟁 기념관 메타데이터 요소

메타데이터 요소	
메뉴명(분류체계)	실물규격
박물관 코드	수집근거
제목	자료 개요
내용	상세 정보
등록자	추가 항목
재질	

3.2 국외 - 영국제국전쟁박물관

IWM은 1차 세계 대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히 영국과 영연방을 포함하여 분쟁을 다루는 분야에서 유일하다. IWM은 현대 전쟁의 역사와 ‘전시 경험’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제공하고 격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IWM은 1920년 6월 9일에 조지 5세 왕의 켄싱턴 남쪽 안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에 의해 문을 열었다. 특히 한국전쟁은 1914년 이래로 영국군이나 연방군이 관련 한 모든 분쟁을 포함하도록 IWM의 위임 조건을 재정의했다. IWM은 그로 인해 광범위한 방침을 문서화 한 모든 유형의 증거를 계속 수집했다. 그 컬렉션은 방대하고 풍부하며 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IWM은 주요 국립 미술 갤러리, 서면 및 시청각 자료의 국가 아카이브 및 연구 센터이기도 하다. IWM은 다섯 개의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WM london이 본관으로 1976년 IWM duxford가 설립되고, 1978년 HMs 벨라스트와 1984년 처칠박물관이 개관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WM north가 개관되었다

많은 전쟁 박물관들 중에서 영국에 있는 제국전쟁박물관에 대해 사례조사를 한 이유는 첫째, 가장 많은 기록물들과 넓은 범위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분야는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소장 기록들을 합쳐보면 800,000으로 상당하다. 또한 컬렉션의 분야들이 매우 다양하다. 문서, 사진, 영상, 구술 기록뿐만 아니라 예술작품까지 전쟁 관련 기록물로 보고 수집, 관리하였다. 둘째, 한국 전쟁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 영국이 한국 전쟁의 참전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키워드나 카테고리도 한국전쟁이라는 용어가 포함될 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이에 전쟁기념관의 기록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가 자세히 되어있다. 사례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전쟁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제국전쟁박물관처럼 자세히 되어있는 박물관이 없었다. 분야나 카테고리, 주제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기록의 유형도 훨씬 다양하였다.

IWM은 컬렉션 부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록물의 유형은 다음 <표 3>과 같다. 컬렉션 중에 컬렉션 관리와 박물관 행정기록은 전쟁 관련 기록물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표 3> 기록물 분류

분야	내용
예술	예술분야는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분야이다. 현재 IWM은 북 아일랜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최근의 전쟁 관련 기록물도 수집중이다. 거의 20,000개의 아이템을 소장하고 있으며, 회화, 인쇄물, 조각품, 사진, 사운드 및 필름과 같은 미디어 작품을 포함한다. 예술 분야의 기록물을 보면 전쟁 이미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생각과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분야	내용
문서	<p>문서분야는 1914년 이래 주로 영국 및 연방 군인이 작성한 미 출판 일기, 서신 및 회고록과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중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요한 개인 서적의 거의 2만개의 개인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p> <p>그리고 IWM은 뉘른베르크와 동경에서 수행된 주요 전쟁 범죄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영국 기록과 주로 독일과 일본 전쟁과 관련된 제 2차 세계 대전 관련 문서를 포함하여 많은 외국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p>
책 & 출판물	<p>책과 출판물분야는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과 관련된 많은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에 대한 단위 역사, 기술 매뉴얼, 전기, 자서전 및 간행물, 신문, 트렌치 저널, 선전 전단지, 팜플렛을 포함한다.</p>
전시물	<p>전시물분야는 155,000개가 넘는 전시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시물의 유형으로는 유니폼, 플래그, 배지 및 휘장은 영국뿐만 아니라 연합군과 적군과 관련된 모든 무장 서비스와 기관들의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주 및 회피 품목, 전쟁 포로 및 민간인 수화물, 트렌치 예술, 전장 기념품, 식료품, 화폐, 장난감 및 게임, 개인이 소유했던 메달 및 훈장, 20세기와 21세기 전쟁에서 사용된 라디오, 암호 장비, 레이더, 카메라, 의료장비, 무기 및 군수품, 전투 탱크, 해상 장비 및 항공기 구성품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시회 품목들이 있다.</p>
사진	<p>사진 분야는 현재 크림 전쟁(1853~1856년 동안 진행된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등 연합군이 크림반도와 흑해를 둘러싸고 벌인 전쟁)에서 현재까지의 현대 분쟁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약 1100 만 개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공식 군용 사진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p>
영상	<p>영상분야는 공공 및 서비스 정보 필름, 다큐멘터리 및 편집되지 않은 전투 영화에서부터 공식 뉴스 릴 및 아마추어 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를 대표하는 23,000 시간 이상의 동영상으로 관리하고 있다.</p>
녹음(구술)	<p>구술 분야는 1914 년 이래 전투에 관한 33,000 건 이상의 녹음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시와 음악, 연설, 효과음, 방송 등의 중요한 자료를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구술 역사 수집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p> <p>수집 된 자료의 범위는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의 참전 용사들과 함께 구술 기록을 포함하는 수집물의 대량으로 광범위하다. 1919년 ~ 1939년 사이의 영국과 제국, 1945 년 이후의 갈등,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상당한 자료가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주로 영국, 전 연방, 유럽인, 미국인이다.</p>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서 각각의 기록들마다 붙어있는 메타데이터들을 확인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제국전쟁박물관 메타데이터 요소

영국 제국전쟁 박물관의 메타데이터 요소		
		*필수
목록 번호*	재료	메모
분야*	대체 표제	관련 단체
부분	카테고리*	관련사람 및 조직
생산자	설명*	관련 장소*
제작 일자	라벨	관련 이벤트*
제작 장소	기입된 글	관련 주제*
주제 기간*	물리적 설명	관련 테마*
치수	전체 설명	관련 키워드*
전시위치*	공개여부	

3.3 국외 - 캐나다 전쟁 박물관

캐나다 전쟁박물관 컬렉션부문은 캐나다 전쟁 박물관과 캐나다 역사박물관이 참여하고 있다. 컬렉션 부문의 기록물 유형에는 유물 표본, 원주민 예술과 유물, 민속 예술, 가구, 전쟁 예술, 군사 물체, 유리, 도자기, 섬유 등이 있다. 이 목록에는 현재 240,000 개 이상의 개체가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전쟁 박물관의 국립 컬렉션은 캐나다 군사 경험을 대표하고 개인,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캐나다의 군대 역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군사 유물 및 예술 작품을 모은 것이다. 또한 컬렉션부문과 군사 역사 연구 센터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컬렉션 부문에는 무기 및 갑옷 컬렉션, 미술 및 기념 컬렉션, 복장 및 휘장 컬렉션, 교통 및 포병 컬렉션 및 생활사 컬렉션이 관리하는 군사 유물 및 예술 작품이 포함된다. 캐나다 전쟁 박물관의 군사 역사 연구 센터 (Military History Research Center)에는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군대 역사를 기록한다. 컬렉션 고유의 보관 문서와 사진 자료를 포함하고, 제 1차 및 제 2차 세계 대전에 특히 많은 양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원본 편지, 일기, 스캐프북, 일지, 지도, 3D지도, 청사진, 엽서, 악보, 기록, 구술 기록 테이프 및 기타 인쇄물이 포함된다. 컬렉션의 사진 부분에는 흑백 사진과 컬러, 네거티브, 유리 슬라이드, 대거 레오 타입, 튜브 타입, 입체 슬라이드, 핸드 튜브드 초상화, 필름 릴 및 비디오 등 원본 사진이 포함 된 약 90,000 개의 항목이 있다. 또한 연대 역사, 출판 개인 회고록, 정기 간행물, 신문, 전시 팜플렛, 군사 기술 및 현

장 매뉴얼, 멀티미디어, 5,000 희귀 도서를 포함하여 약 60,000권이 있다. 다음 <표 5>는 캐나다 전쟁 박물관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기술한 표이다.

<표 5> 캐나다 전쟁박물관 메타데이터 요소

캐나다 전쟁박물관의 메타데이터 요소			*필수
제목*	ISBN	주제*	
저자*	설명	연구 장소	
출판자/출판일시*	설명 언어	규율	
시리즈	접근과 저작권	군대	
기술*	관계있는 재료	제한 번호	
전자자원	주제	유물 번호	
요약	문화적 그룹	다른 번호	
전기/역사적 주의	이용가능		

4. 전쟁 관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4.1 메타데이터 표준 비교

전쟁 관련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 메타데이터 중 전쟁 관련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준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더블린코어는 가장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각각의 메타데이터 스키마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메타데이터 요소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 각 요소의 의미, 요소들 사이의 관계 등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표준화시켜 정의해준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러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지닌 다양한 특성을 통합해주고, 정보자원의 기술사항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매우 기본적인 요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기 못한다. 두 번째로 CDWA는 박물관이나 문서보존소와 같이 예술정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에서 예술품과 그 이미지를 기술하기 위해 개발한 예술용 메타데이터이다. CDWA는 모든 시대와 지역에 걸친 그림, 조각, 금속작품, 공예, 가구, 디자인, 공연 예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행위 예술의 동화상과 이미지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CDWA는 정적인 이미지 작품 및 동적인 작품을 기술할 수 있도록 요소를 규명하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작품을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형식

설정하고,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구성한다. 이런 기능들이 전쟁 관련 기록물 중 예술 작품이나 다양한 유형을 기술하는데 요소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각화 자료보다는 박물관 객체를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물분류표준이다. 한국유물분류표준은 한국의 문화유산정보를 기술하는 대표적인 메타데이터로 199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안하였다. 이는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13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유물분류 표준은 필수항목(16개), 관리 항목(25개), 유물의 이동 항목(5개), 장르별 세부 항목(78개), 기관별 관리 항목(8개)의 13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항목에는 명칭, 시대, 재질 등 유물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모든 박물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항목들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관리 항목은 유물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항목과 특정한 유물이나 특정 분야에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유물의 이동 항목은 보관 장소의 변경, 진열, 해외 전시 등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 사용된다(국립중앙박물관 2005).

다음 <표 6>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의 표준을 비교한 것이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요소들을 표시하였다.

<표 6> 메타데이터 표준 비교

CDWA	한국유물분류표준	더블린 코어
대상/작품	소장구분	식별자
분류	유물번호	유형
제목	수량	제목
창작	수량 단위	주제
형식/기한/단체/예술적 흐름	명칭	일시
수치	국적/시대	포맷
재료와 기법	작자/제작처	관계
규명/표시	재질	출판자
상태	용도/기능	기여자
판	장르	생산자
제작법	문화재 지정 일자	저작권
배열	문화재 지정 구분	언어
물리적 기술	문화재 지정 호수	범위
조건/검사연혁	크기 1(실측 부위)	기술
보존/관리역사	크기 2(실측치)	출처
주제	특징	
내용	전시 순위	
기술노트	유물 상태	
비평	원판 번호	
관련 작품	입수 일자	
현재 위치	입수 연유	
저작권/제한	입수처	
소유권/소장유래	등록 일자	

CDWA	한국유물분류표준	더블린 코어
전시/차용연혁	자료 기록자	
목록 연혁	자료 입력자	
관련 시각문헌	참고 자료	
관련 참고자료	현존 여부	
	이동 일자	
	이동 수량	
	보관 구분	
	보관처	

앞선 표와 사례조사를 하여 알게 된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과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았다. 이를 통하여 전쟁 관련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여 다음 <표 7>을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표 7> 전쟁 관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영역	상위요소	하위요소		필수/선택	출처
식별영역	식별자			필수	ALL
	부분			해당시	IWM
	제목			필수	ALL
배경영역	생산	생산자 기술	생산 기관 =/생산자	필수	ALL
			생산자 출신	선택	.
			생산자 신분	선택	CDWA
			생산자 역할	선택	CDWA
			생산 일시	필수	DC/CDWA
			생산 장소	필수	CDWA
			생산 수	선택	CDWA/한국유물분류표준
내용영역	주제			필수	DC/CDWA
	설명			필수	ALL
	군대			선택	CA
	언어			해당시	DC/IWM
관계영역	관련 단체			선택	IWM
	관련사람 및 조직			선택	
	관련 장소			선택	
	관련이벤트			선택	
	관련키워드			선택	

영역	상위요소	하위요소	필수/선택	출처
물리적 기술영역	유형		필수	ALL
	치수		선택	IWM
	재료		선택	ALL
	용도/기능		선택	한국유물분류표준
	물리적인 기술		선택	CDWA/한국유물분류표준
이용영역	수집근거		선택	전쟁기념관
	전시정보		선택	.
	저작권	공개	선택	DC/CDWA/IWM
		비공개	선택	
관리영역	등록 일자		필수	한국유물분류표준
	이동 일자		선택	
	보관처		필수	CDWA/한국유물분류표준

전쟁 관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메타데이터 표준인 DC, CDWA, 한국유물분류표준과 국내의 전쟁기념관과 국외의 영국 제국전쟁박물관(IWM), 캐나다 전쟁박물관(CA)에서 사용한 메타데이터들을 근거로 도출하였다.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은 첫째, 기록물의 생산주체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은 국가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만들어진 기록물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개인 일기조차도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볼 때 기록물 생산주체 또한 광범위하다.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 외에도 한국전쟁 당시를 경험한 피난민, 간호사 등의 전쟁일기나 종군기자의 사진기록 등을 볼 때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정화 2014). 이 부분에서 메타데이터 요소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dwa의 창작자 부분이 자세히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또한 제국전쟁박물관의 기록물 분야 중 예술분야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분명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다. 앞서 본 제국전쟁박물관을 봐도 아시다시피 분야를 7개로 나누고 예술작품까지 포괄하는 기록물의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예술용 메타데이터인 cdwa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앞서 다룬 기관 모두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특히 박물관이 많다. 그리고 기록물의 유형을 보면 전시물이 특히 많은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를 할 경우 이것에 관련된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유물분류표준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자한다. 또한 이미 전쟁 관련 기관에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요소들 중 가장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뽑았다.

전쟁 관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는 총 23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상위요소에는 ‘필수요소’가 11개, ‘해당시 필수요소’가 2개 ‘선택요소’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1) 식별영역

식별자는 기록물을 개별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요소로서 기록 관리를 편이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자요소는 필수이다. 부분은 컬렉션의 부분을 기술하는 요소로서 시리즈의 한 부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리즈나 컬렉션의 부분이 아닌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해당시 필수이다.

(2) 배경영역

생산은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인 생산자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생산자 기술의 하위요소를 생산기관/생산자, 생산자 출신, 생산자 신분, 생산자 역할로 나누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 중 생산자 출신은 본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생산 기관/생산자만이 필수요소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요소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자의 역량에 맡겼다. 또한 자세한 기술을 위하여 생산 일시, 생산 장소 요소를 추가하였다. 두 가지 요소 다 필수요소이다. 그리고 생산 수는 기록들의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택요소이다.

(3) 내용영역

주제 요소는 기록들의 주제를 기술하는 요소로서 카테고리나 분야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설명은 기록의 내용을 기술하는 요소이다. 주제요소와 설명요소 두 가지 다 필수 요소이다. 또한 전쟁 관련 기록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캐나다 전쟁 박물관에서 특이하게 사용하는 군대 요소를 추가하였다. 군대 요소는 기록물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군대에 대해 기술하기 위한 요소이다. 이용자가 검색을 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군대 요소는 전쟁 관련 기록물 중에서도 군대와 관련이 없는 기록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요소이다. 그리고 언어는 기록에 쓰여 있는 언어의 종류를 기술하는 요소이다. 기록물의 유형이 그림이나 사진인 경우에는 글이 쓰여 있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시 필수 요소이다.

(4) 관계영역

관계영역은 관련 단체, 관련사람 및 조직, 관련 장소, 관련 이벤트, 관련 키워드 총 5개의 관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영역은 전쟁 관련 기록물을 전쟁이라는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전쟁 관련 영역은 전쟁이라는 큰 사건에 관계되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검색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을 기술하는 요소이다. 관계 영역의 메타데이터 요소 다 선택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5) 물리적 기술영역

물리적 기술영역은 문서류 이외의 그림, 사진이나 박물들을 기술하기 위한 요소로써 유형, 치수, 재료, 용도/기능, 물리적인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은 문서, 사진, 그림등 여러 가지 유형을 기술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수 요소이다. 그 외의 요소들은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상 군사장비,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하였고, 문서류는 기술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선택 요소로 구성하였다.

(6) 이용영역

수집근거는 기관에서 기록물을 수집한 이유를 기술하는 요소로서 전쟁기념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 전쟁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기록물 수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다. 저작권요소는 전쟁 관련 기록물들은 매뉴스크립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민간에서 수집한다. 민간에서 수집하거나 기증 받은 경우 저작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 소유자의 권한에 의해 기록이 공개되거나 비공개 될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술되어야 한다. 전시 정보는 전쟁 관련 기록물이 교육이나 견학을 위해 전시를 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이다. 전쟁 관련 기록물들이 박물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하였다. 이용영역에 있는 세 가지 요소 다 선택 요소이다.

(7) 관리영역

마지막으로 관리영역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요소인 등록일자, 이동일자, 보관처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요소들은 전쟁 관련 기록물들이 자주 전시되어지고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다른 나라로 수집되거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 요소들이다. 등록일자와 보관처는 필수로 기술되어지고, 이동 일자 는 기술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요소로 기술되어진다.

4.2 전쟁 관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 적용

4.2.1 사례를 통한 요소 적용 - 문서

다음 <표 8>은 캐나다 전쟁박물관에서 korean war라고 검색했을 경우 나오는 문서들 중 하나이다. 캐나다 전쟁박물관은 문서의 경우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표 8> 전쟁 관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 문서

상위요소	하위요소	기술 내용
식별자		58A 1 249.18
부분		
제목		Korean Diary by Roy Durnford

상위요소	하위요소		기술 내용
생산	생산자 기술	생산 기관 /생산자	Durnford, Roy Charles Henry, Major
		생산자 출신	England
		생산자 신분	목사
		생산자 역할	군대에 거주하면서 봉사
	생산 일시		1950
	생산 장소		korea
	생산 수		1
주제			한국전쟁의 회고록
설명			1950년 11월에 한국에 도착한 Durnford의 한국에 대한 인상을 담고 있다.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상당히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한국에서의 매춘, 민간인, 종교, 난민에 대한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군대			Canadian Army Royal Canadian Army Chaplain Corps
언어			In English.
관련 단체			
관련사람 및 조직			Canadian Army
관련 장소			korea, canada
관련 이벤트			Korean War
관련 키워드			Korean War, Korea, canada Personal narratives
유형			Textual Records
치수			21.5 x 27.6 cm
재료			
용도/기능			
물리적인 기술			diary
수집근거			
전시정보			
저작권	공개	공개	
저작권	비공개		
등록 일자			2011.01.19
이동 일자			
보관처			CWM ARCHIVES

4.2.2 사례를 통한 요소 적용 - 사진

다음 <그림 2>와 <표 9>는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서 Korean war라고 검색하였을 때 나오는 사진이다.



<그림 2> 전쟁 관련 기록물 예시

<표 9> 전쟁 관련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 사진

상위요소	하위요소		기술 내용
식별자			MH 31507
부분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KOREAN WAR OFFICIAL COLLECTION
제목			KING'S OWN SCOTTISH BORDERERS IN KOREA 1951 - 1952
생산	생산자 기술	생산 기관 /생산자	Godfray Martin (Sergeant, British Army)
		생산자 출신	ENGLAND
		생산자 신분	군인
		생산자 역할	PR photographer, Rifle Brigade
		생산 일시	1951
		생산 장소	Cheju-Do, Korea
		생산 수	
주제			한국전쟁에서 찍은 사진
설명			스코틀랜드의 제 1대 국왕 Borderers와 함께 상사 Bob Gilmore가 지켜보는 가운데 짐 나르는 한국인들이 중요한 물품을 운반하고 있다. 카메라 가장 가까이 있는 Hang Chong Sun이라는 한국인은 1951년 가을에 격렬한 싸움을 벌이던 용사이다.
군대			British Army
언어			
관련 단체			British Army
관련사람 및 조직			British Army, King's Own Scottish Borderers, Hang Chong Sun, Bob Gilmore

상위요소	하위요소	기술 내용
관련 장소		Korea
관련 이벤트		Korean War 1950-1953
관련 키워드		Transport Gallantry Supply
유형		Photographs
치수		
재료		
용도/기능		
물리적인 기술		Black and white
수집근거		
전시정보		
저작권	공개	공개
저작권	비공개	
등록 일자		2005.08.15
이동 일자		
보관처		IWM

5. 결론

본 연구는 전쟁 관련 기록물을 정의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범위를 제안하였다. 전쟁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전쟁 기념관과 영국 제국전쟁박물관, 캐나다 전쟁박물관에 관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고, 기관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참고하였다. 전쟁 관련 기록물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선정하고 비교하여서 결론적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른 메타데이터 요소와 차이점으로는 첫째, 생산자 요소의 하위요소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나라들이 참전하고 있고, 국민 모두 생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대 요소를 추가하였다. 군대요소는 전쟁 메타데이터만이 가질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로서 많은 기록물에 기술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이 요소를 통해서 검색할 확률이 높다. 셋째, 관계 영역의 요소들이 많다. 관련된 나라와 단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기술하기 위하여 추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시요소이다. 사례조사를 진행했던 기관들이 많은 박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전시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이를 기술할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드러난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원인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원인은 1993년 소말리아의 미 대사관이 공격당해 40명의 직원과 대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이라고 하고 있다. 그 후 911 테러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2001년 미국이 알카에다 은거지인 아프가니스탄에 침공 작전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전쟁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3세대 전쟁이라고 불리며, 현대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4세대 전쟁 양상으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4세대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1세대 전쟁 이후 전쟁의 중요 행위자였던 국가 이외에 새로운 행위자인 비국가 행위자가 전쟁의 중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전쟁에서의 전투는 나폴레옹 이후의 국민군대 중심의 전투와 달리 분산된 전장에서 분권적 병참에 따른 높은 기동력을 가진 소규모 비국가 조직에 의해 전개되며, 물리적 파괴가 아닌 적 내부의 사회적·문화적 붕괴를 전투의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4세대 전쟁에서는 전투 행위자의 구분, 전선의 구분, 더 나아가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모호해진다(조한승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전쟁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례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4세대 전쟁 양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설계를 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4세대 전쟁 양상과 특수한 전쟁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연구를 할 때 본 연구가 기초적인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05).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 표준화(개정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마정춘 (2009). 6·25 전쟁기 미 육군 역사기록물의 유형과 정리 방안. 군사, (73), 321-350.
- 밀러 프레드릭 (2002). 아카이브와 메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서울: 진리탐구.
- 문정화 (2014).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서울.
- 서연수, 남연화, 박지원, 엄소영, 김용 (2016).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99-129.
- 영국 제국 전쟁 박물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0.08.05. <http://www.iwm.org.uk/>
- 유영산 (2004). 매뉴스크립트 수집절차 체계화 방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서울.
- 장윤이 (2014). 인천의 근현대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법 연구. 인천학연구, 20, 147-192.
-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0.08.05. <https://www.warmemo.or.kr/>
- 조한승 (2010). 4세대 전쟁의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논총, 50(1), 217-240.
- 캐나다 전쟁 박물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0.08.05. <http://warmuseum.ca>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anadian War Museum. Retrieved August 05, 2020, from <http://warmuseum.ca>
- Cho, Han-Seung (2010). Theoretical Problems and Reality of 4GW : On the Critique of Insurgenc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50(1), 217-240.
- Imperial War Museums. Retrieved August 05, 2020, from <http://www.iwm.org.uk/>
- Jang, Yuni (2014). Study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Digital Archives of Modern archives in Incheon. The Journal of Incheon Studies, 20, 147-192.
- Ma, Jeong-chun (2009). The Type and Arrangement Plan of the US Military Archives During the Korean War. Military History, (73), 321-350.
- Miller, Fredric M. (2002). 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Seoul:

jinlitamgu.

Moon, Jeong-Hwa (2014). Study on the Korean War Records – Focus on Collection (Master's thesis). Graduated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2005). The Standardization of Artifact Classification for Computerization of Museum Artifact Management.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Seo, Yeon-Su, Nam, Yeon-Hwa, Park, Ji-Won, Um, So-Young & Kim, Yong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etadata Schema for the Records and Archives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JRMASK, 16(3), 99-129.

The War Memorial of Korea. Retrieved August 05, 2020, from <https://www.warmemo.or.kr/>

You, Young-San (2004).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Manuscript Collecting Process - Focus on Archives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Master's thesis). Graduated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Seoul.